

# 하찮다고 여기는 것에서 격물치지와 근사를 찾는

格物致知                      近思



미.술.비.평.가.박.영.택.식.물.성.의.사.유

## 눈 밝은 비평가의 동선

미대 교수이면서 미술평론도 활발하게 펼치는 박영택씨(40)는 동선動線이 그리 넓지 않은 사람이다. 그는 시간이 날 때 책을 읽거나 전시회를 둘러본다. 조금 더 여유 있을 때는 예쁜장한 문구류를 고르고, 안경테를 고르고는 한다. 고답적이고 권위적이기 쉬운 미술평론가의 이러한 동선은 때거리 지어 뒤풀이 장소를 찾아다니고, '여행'이라는 미명하에 일종의 결사체 비슷한 집단을 형성하며 서로를 위해 복무하는 일부 예술가들의 그것과는 차별화를 이룬다. 그런 그가 펴낸 《식물성의 사유》는 그러나 그의 동선을 분명하게 배반한다. 그가 들이던 감식의 그물에 걸려든 작품들은 작가의 뜻과 상관없이 알몸이 된다. 박영택의 눈이 닿는 순간 그림과 사진의 주인공차 생각지 못했던 사유의 별관이 펼쳐지는 것이다. 작가 100명의 작품 104점에 헌사처럼 바쳐진 해설 모음집으로 칭할 수 있는 《식물성의 사유》는 그래서 주례비평 외에도 무지 출구가 없을 것 같았던 미술비평의 새로운 눈뜸에 물꼬를 튼, 격조 높은 텍스트이다.

"미술관 큐레이터로 9년 동안 일한 경험이 있는데 그때 화가와 사진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전시 기획자로서 화단의 보수적인 틀에 안주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 결심을 무너뜨리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저에게 예술 작품에 대한 안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의 경험과 이성 덕분일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술계의 새로운 흐름과 일정한 코드의 등장

도 지켜볼 수 있었던 것 역시 행운이었습니다. 회화와 조각 사진에서 발견한 식물성이란 코드 역시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죠."

《식물성의 사유》의 가장 큰 미덕은 저자의 말마따나 '격물치지格物致知'(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각각의 물物에 이르러 그 이치를 깨닫는다)와 '근사近思'(우선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이해한다)의 실마리는 우리 주위에 산재한 한 떨기 꽃이나 풀과 나무일 수도 있다는 데 자리한다. 서양적 과학적 세계관 앞에 미술의 초라한 소재들로 전략한 생명체들의 내면을 깊이 투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야말로 예술의 또 다른 본질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연과 인간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박영택의 생명관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 인식의 근거가 뒷받침됐다고 해도 박영택 씨의 식물성에 대한 관념과 사유의 깊이는 동양적 선비정신과 자연성을 결합시킨 특별한 깊이로 다가오면서 읽는 이의 정신을 적신다.

"특별히 글공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 몸이 아파 1년 동안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 회화공부를 했던 것도 그림에 대한 분석적 사유를 전개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그가 오늘의 미술평론가가 된 계기는 좀 특별하다. 그는 미대에 진학해 그림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어했고, 그의 부

모는 자식이 사범대에 진학해 교사가 되기를 원했다. 그런 필요 충분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 성균관대의 미술교육과였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가고 보니 미술교육과에는 그림을 가르치는 교수가 없었다. 마침 미술교육과가 생활미술 쪽으로 전환하는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때 제가 미술사를 공부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준 분이 은사 조선미 선생입니다. 화가가 된 것도 아니고 교사가 된 것도 아닌데 실제로는 그림 곁을 떠나지 않게 됐죠. 조선미 선생께서 조교 자리를 마련해 주고, 미술사 공부로 저를 이끌어 주셨거든요. 지금은 그림과 관련된 책을 읽고 쓰고,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늘 버겁고, 죄의식을 느낍니다.”

검손이 체질화된 듯한 그는 우리 화단에서 꽤 강단 있는 존재로 얘기된다. 큐레이터로 일한 9년 동안 그는 판에 박힌 전시기획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이를 테면 원로작가 초대전 같은 것 말이다. 화단의 원로들은 푸대접받아 마땅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초대전은 다른 화랑에서도 자주 하므로 자신은 좀 남다른 전시를 꾸며 한국화단의 새로운 정체성과 아우라를 드러내 보이고 싶었다는 것이다. 책 제목과 같은 <식물성의 사유>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전시였고, <사군자-탈사군자> <풍경과 장소> <미술 기호 언어 책> 같은 전시 역시 마찬가지였다. 당연히 열정이 전 재산인 가난한 화가들은 망설임 없이 포트폴리오를 들고 박영택 씨를 찾아오곤 했고 그는 누구보다 넓고 깊은 한국 화단의 현실과 변화 가능성을 읽을 수 있었다. 물성화된 자본주의 예술사회의 정보를 가장 근접한 장소에서 얻을 수 있었던 셈이다. 그는 그 정보를 소중하게 받아들였다.

“식물성의 사유에 대한 작업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작가들의 작업정신에는 동양적인 정신, 자연적인 것의 회귀본능 같은 게 있습니다. 작가 자신은 느끼지 못하지만 그건 우리 몸과 정신이 자연과 친화력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작업의 맥락을 읽어내고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평론가의 일이지요.”

대학에서 미술과 관련한 미술경영, 평론, 미술사, 전시기획 등을 폭넓게 가르치는 그는 큐레이터 경험이 미술에 대한 새로운 눈뜸을 제공했다고 믿고, 지금도 여전히 전시기획자 못지 않은 의욕으로 화랑가를 누빈다. 물론 이런 작업이 늘 설레는 의욕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

그의 이전 저작은 예술가들의 작업실을 일일이 방문 취재한 후 쓴 《예술가로 산다는 것》이었다. 이 저작의 취재대상은 열 명의 작가였는데 그 중 한 명인 김근태씨 얘기를 듣고는 한

밤중에 경주까지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는 그곳 경주의 산자락 한귀퉁이에 지금까지 보아온 작업실 중 가장 누추한 화가의 작업실을 보았고, 그 화실에 들어가 누추한 화실의 주인공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외출한 작가를 기다리며 다시 보니 그 작업실은 세상의 모서리에 간신히 붙박혀 절박함과 극한에 몸을 섞은 작가의 초라한 공간이었다. 그때의 작가 김근태가 지난 1월 2일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박영택씨는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고 했다. 그 안타까움을 가늠은 그는 요즘 김근태 작가 1주기 즈음에 ‘김근태 유작전’을 열면 어떨까, 또 하나의 전시기획을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는 사람과 작품을 떼어놓지 않고 예술정신과 예술가의 삶을 통시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러면서도 일정한 질이 담보되지 않은 작품에 대해서는 허투루 상찬하지 않는 까탈스러운 비평가이다. 다만, 비평가 박영택이 작품을 향해 그윽한 시선을 보낸다는 것은 작가의 인성도 신뢰한다는 뜻이 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하나, 길들여지지 않은 시선과 감각에 눈길을 보내주어야 그들의 시선과 감각이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 우리 화단의 지적 층위가 두터워진다는 것이 박씨의 비평정신 줄기를 이룬다.

“메이저 군단에 포함된 작가를 향해 요식적 해설을 열심히 쓴다고 해서 예술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관심권 밖에서 묵묵히 작업하는 예술가를 꾸준히 지켜보는 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땅의 작가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고, 그들의 작업이 얼마나 옹호한 예술적 성취를 이루는가, 그 함의를 포착해 내는 일이야말로 미술평론가들의 덕목인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평론가들이 의외로 적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의 동선은 넓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서울의 사간동 인사동 평창동 주위를 돌며 전시를 자주 둘러보는데 이런 발품 들인 이야기를 모은 《전시장 순례기》를 곧 낼 계획이다.

목적이나 정지 없는 떠돌이를 허용하기 때문에 자유와 권태를 좋아한다고 밝힌 그는 대부분의 자유와 권태를 회화와 사진, 조각과 설치미술작품을 감상하고 이해하는 데 투자한다. 그러므로 그의 동선은 결코 짧거나 얇지 않다.

그는 전시장을 향해 나설 때 시대를 웅변할 작품들과 조응할 실체적 눈발기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일고여덟 개의 안경 중 한 개를 골라쓴다. **한** 취재 임동현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

